

DAMIAN ORTEGA READING LANDSCAPES

A solo exhibition <Reading Landscapes> of Damián Ortega, a Mexican author who has been gaining recognition in the world of contemporary art in Latin America, was shown at Kukje Gallery on April 10. This is his first exhibition in Korea and many of Ortega's works focus on his unique usage of materials and his sculpture work which explores a force that constructs the world we live in. Aside from sculptures, Ortega provides entertainment to visitors by revealing the hidden aesthetic values and potentials of everyday objects using different platforms, and also by mixing humors, poetry, and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that contain social connotations of these objects. Many of the main works shown in this exhibition were heavily inspired by geology, with some items depicting the shapes inspired from the history of the earth, or other related geophysics theories such as plate tectonics. His new work 'Viaje al centro de la tierra: penetrable' which portrays cosmic notions within an exploded shape, is being displayed in the center of K3 hall, acting as the 'axis of the universe' to explain the key concept of the exhibition. The rocks and minerals hanging in midair from the ceiling resemble an arrested Big Bang, frozen in time. Among the sculptures that are surrounding this branch, 'Breve esquema del Tiempo' and 'Geoda 3: Cebolla' are placed on a single pedestal, suggesting a type of metamorphic evolution. In his other works such as 'Falla' and 'Todas las fallas', common materials such as bricks, castings, concrete, and wood are being used to show a hidden dynamics that is forming a recreated planet. This exhibition which encourages visitors to intervene and be part of the works and their ambience, will be running until May 11, 2014.

지난 4월 10일 국제갤러리에서 동시대 남미 현대미술의 주목받는 멕시코 출신 작가 다미안 오르테가의 개인전 (리딩 랜드스케이프)가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여지는 오르테가의 전시로, 그의 작업은 재료의 독특한 용법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구축하는 힘에 대한 탐구를 다룬 조각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각 작품 외에도 그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일상 사물에 내재한 예술적 특성과 장재성을 드러낼과 동시에 그것들의 사회적 내포를 담아내는 유머, 시, 탁월한 공학기술의 혼합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전 시에 소개된 주요 작품들은 지질학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이 작품들은 지구의 역사, 예를 들면 판 구조론 같은 지구물리학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형상을 묘사하기도 한다. 폭파된 형태 속 우주적 관념을 드러내는 그의 신작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 관통학 수 있는' 은 K3관 가운데에 설치되어 전시의 핵심 개념을 알려주는 '세계의 축'으로서 기능하며 이 작품에서 천장에 매달린 바윗돌과 광물들은 마치 시간 속에 얼어붙은 빅뱅의 정지상태처럼 보인다. 이 작품과 연관된 조각들은 이곳 주변에 배치됐는데, 작품 중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과 '정동석 3: 양파'는 동일한 받침대 위에 놓여 있어 일종의 변성진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 밖에 작품 '단층' 과 '모든 단층들' 에서는 벽돌, 주물, 콘크리트, 나무 등과 같은 흔한 재료를 통해 재창출된 행성을 형성하고 있는 감춰진 역학을 엿볼 수 있다.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과 그것의 환경에 개입하도록 하는 이 전시는 5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www,kukjegallery.com ***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Breve esquema del Tiempo, 2014